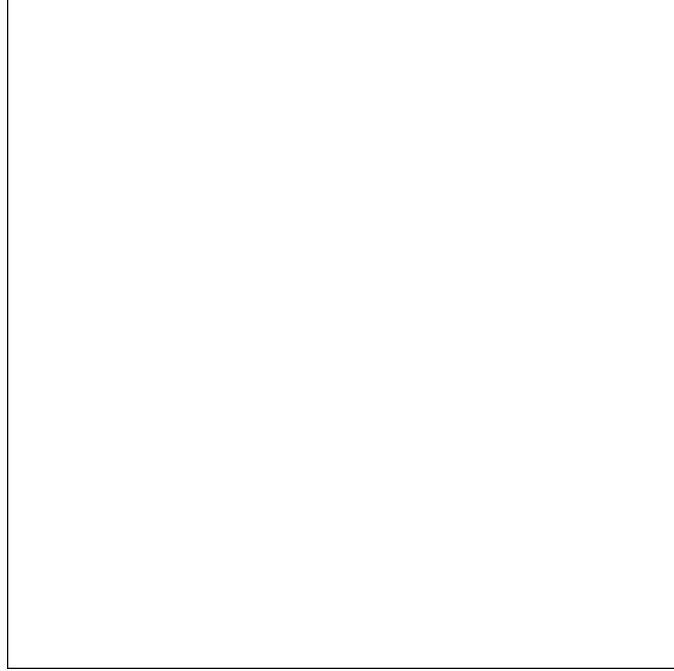




# 사키미의 노래



Ursula Nafula  
 Peris Wachuka  
 Jong Yong Park  
 Korean  
 Level 3

(imageless editio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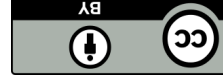
# Storybooks Canada

[storybookscanada.ca](http://storybookscanada.c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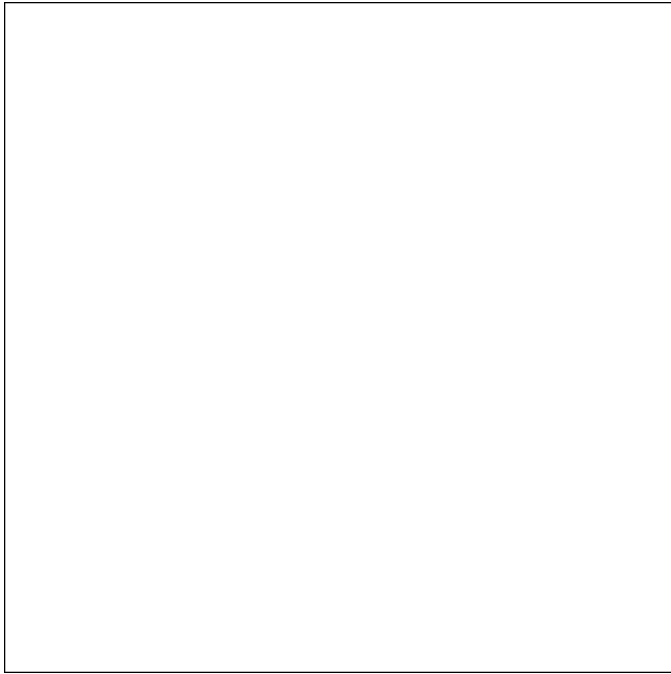
## 사키미의 노래

Written by: Ursula Nafula  
 Illustrated by: Peris Wachuka  
 Translated by: Jong Yong Par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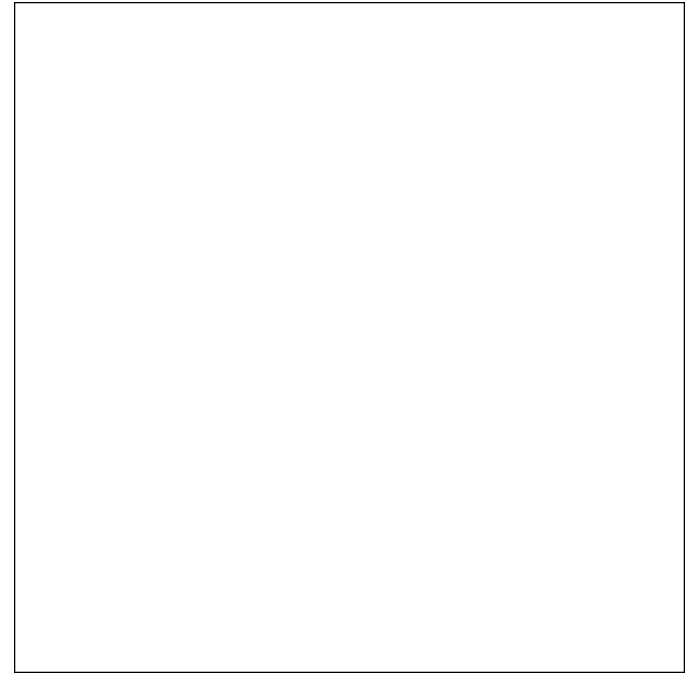
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([africanstorybook.org](http://africanstorybook.org))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's stories in Canada's many languages.
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.0 International License.  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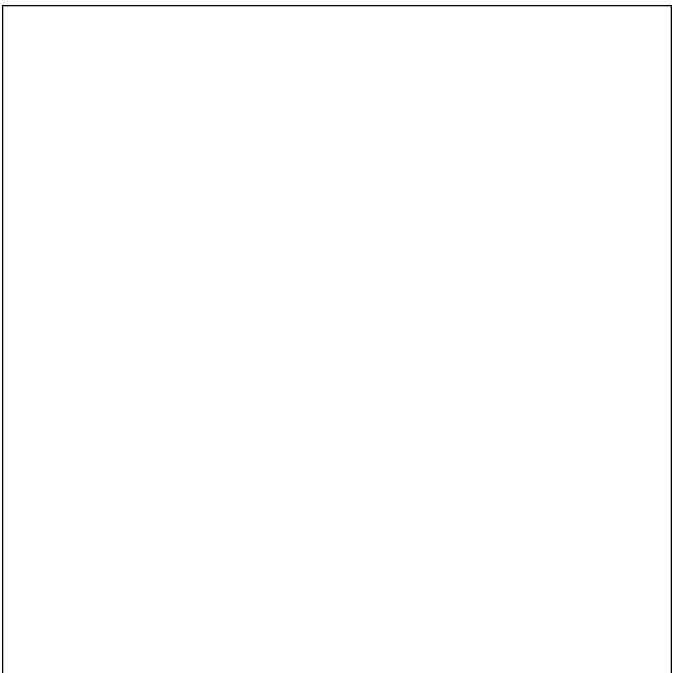


사키마는 그의 부모님과 네살 여동생과 살았어요. 그들은 부자의 땅에 살았어요. 그들의 집으로 엮은 오두막은 한 줄의 나무 끝에 있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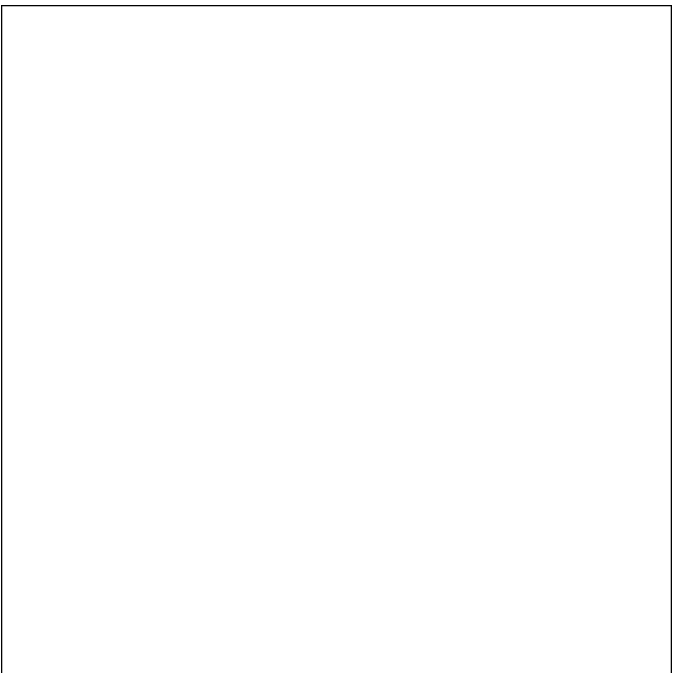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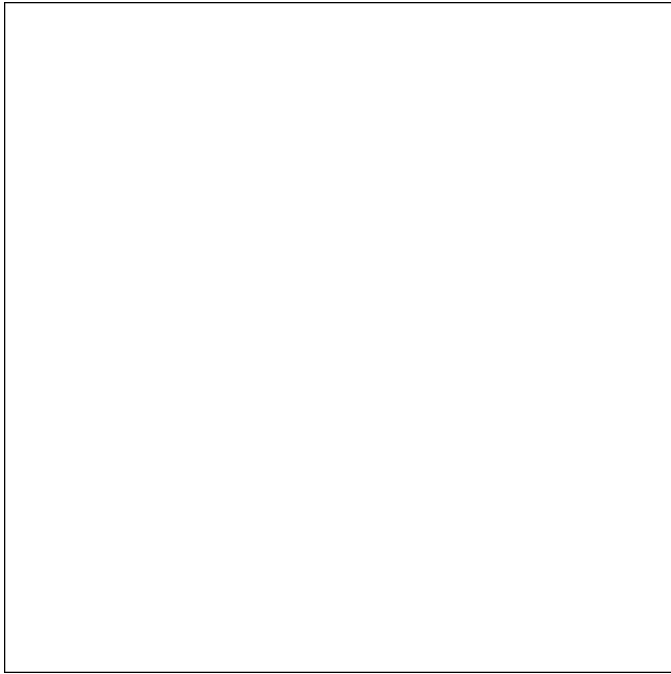
부자는 아들을 다시 본 것이 정말 기뻐했어요. 그는 사키마를 자신을 달래준 것에 대해 보답했어요. 그는 그의 아들과 사키마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사키마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했어요.

바로 그 순간, 두 남자가 누군가를 들것에 싣라  
왔어요. 그들은 두들겨 맞고 킁꿍에 남겨진 부  
자의 아들을 찾았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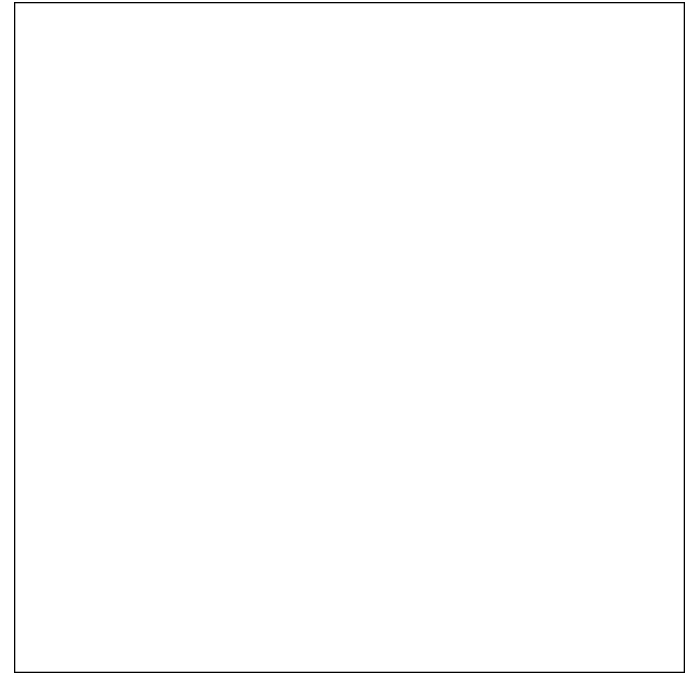


사카미가 세상이었을 때, 그는 병에 걸려 시력  
을 잃었어요. 사카미는 재능이 있는 아이였어  
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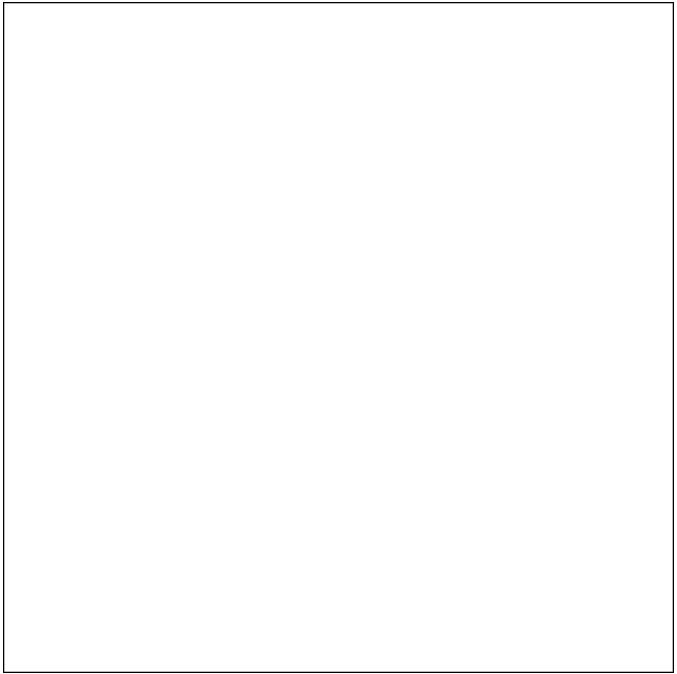


사키마는 다른 여섯살 아이들이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. 예를 들어 그는 나이든 마을의 구성원들과 같이 앉아 중요한 일들을 의논할 수 있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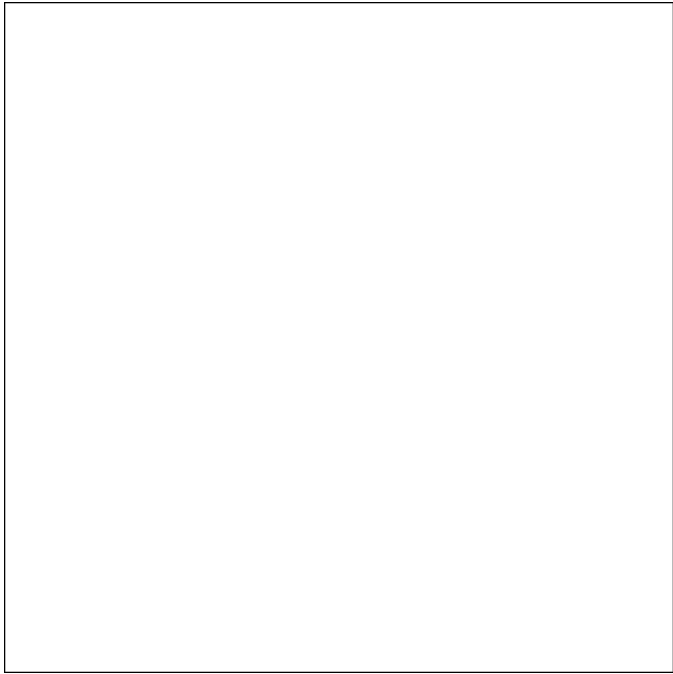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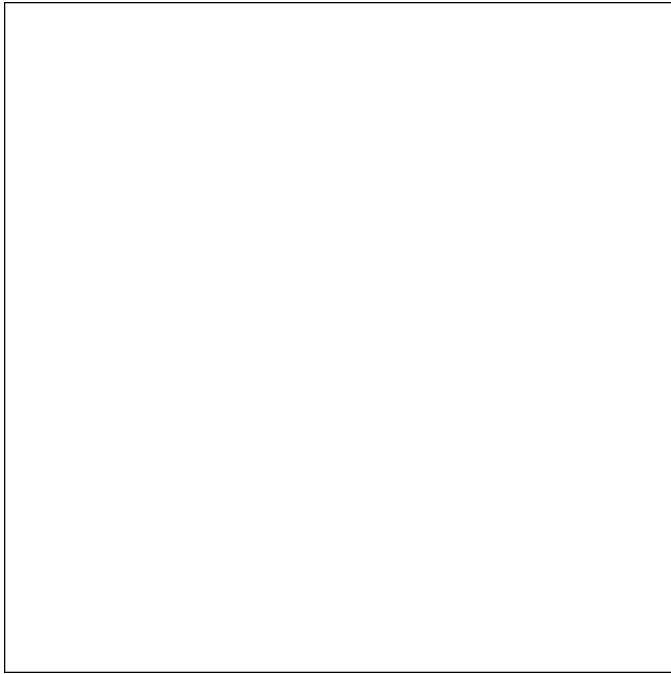
사키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어요. 하지만 부자는 급하게 나와서 “다시 노래를 불러주게” 라고 말했어요.

사키미의 부모님은 부친 집에서 일했어요. 그  
 들은 집을 아침 일찍 떠나서 저녁 늦게 돌아왔  
 어요. 사키미는 어린 여동생과 남겨졌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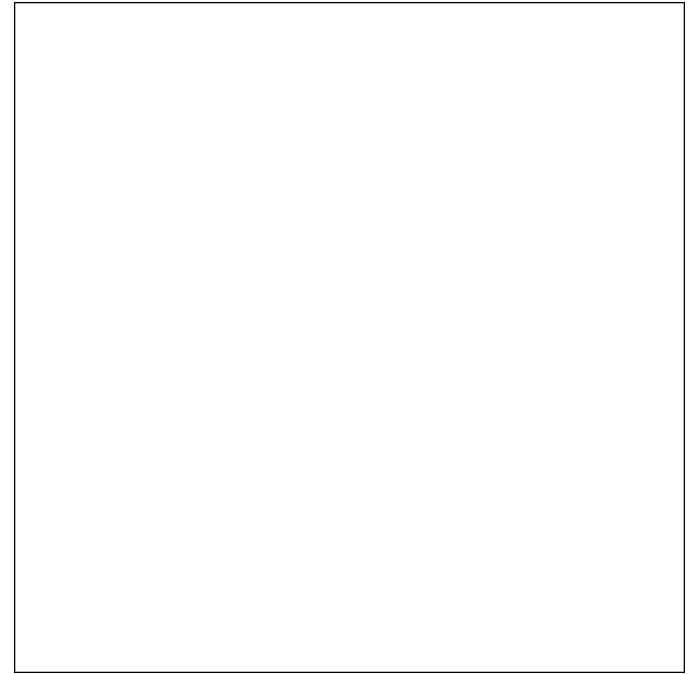


일꾼들은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. 그들은 사키  
 미의 아들다운 노래를 들었어요. 하지만 한 남  
 자가 말했어요, "누구도 사자님을 탄래지 못했  
 어. 이 곡이 먼 아기가 그를 탄래 수 있을까?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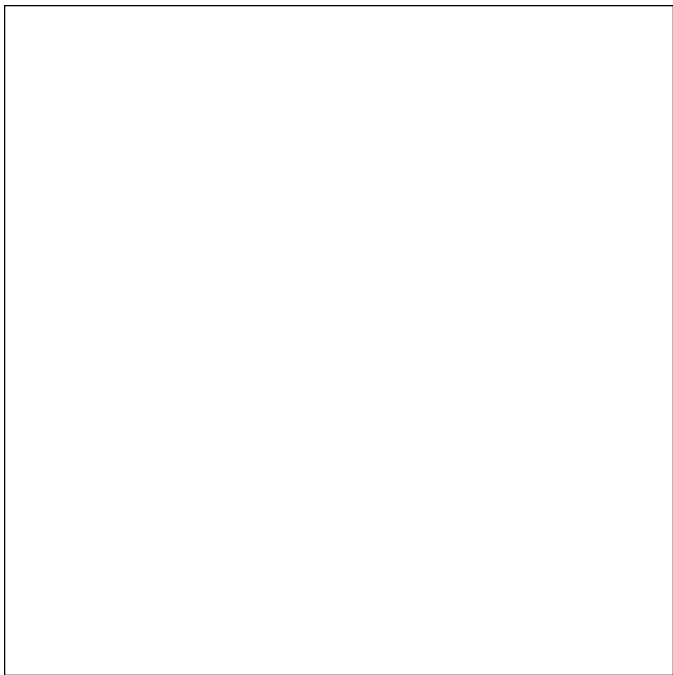


사키마는 노래 부르는 걸 사랑했어요.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묻기를, “어디서 이런 노래들을 배웠니, 사키마야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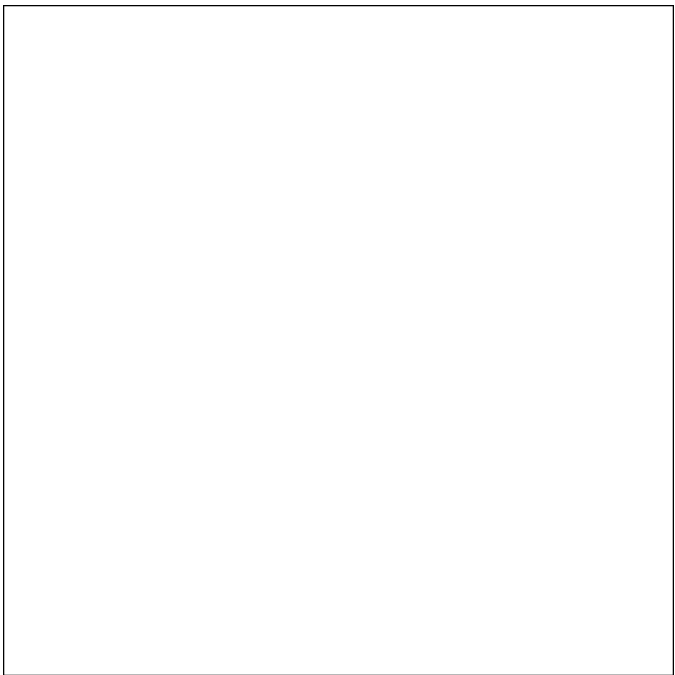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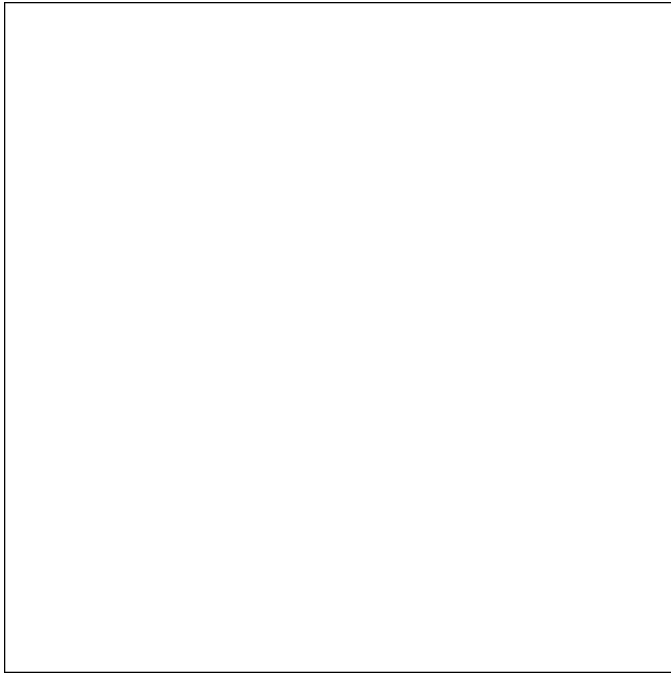
그는 한 큰 창문 아래에 서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. 천천히, 부자의 머리가 큰 창문에 보이기 시작했어요.

다음날, 사키미는 여동생에게 그를 부친처럼 부를 거라고 부탁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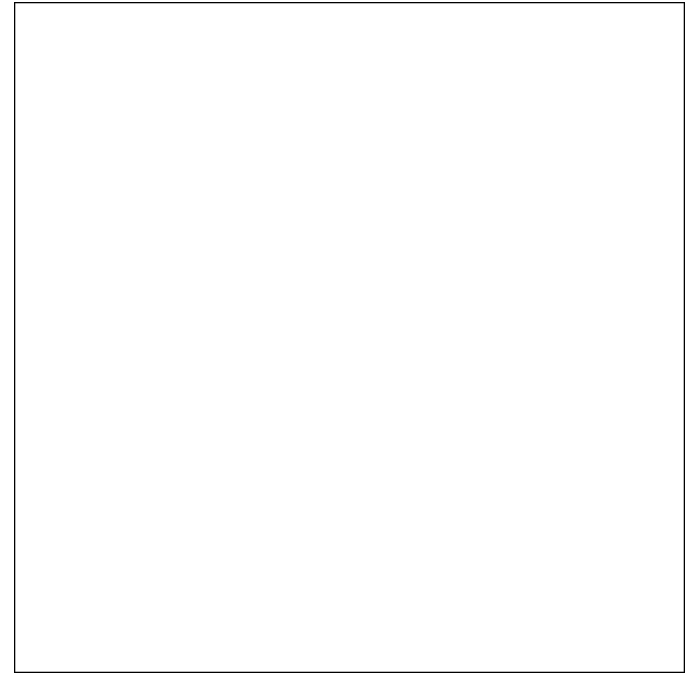


사키미가 대답했어요, "이것들은 그냥 저에게 포요, 어머니. 제 머릿속에서 들리고 싶지 않아요."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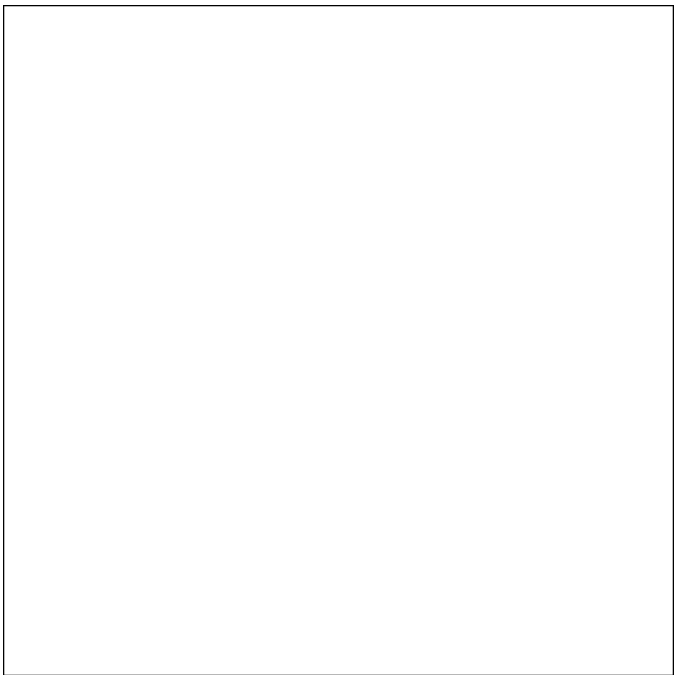
사키마는 여동생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고, 특히나, 동생이 배고플 때 말이죠. 여동생은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들곤했어요. 편안한 곡조에 몸을 흔들곤했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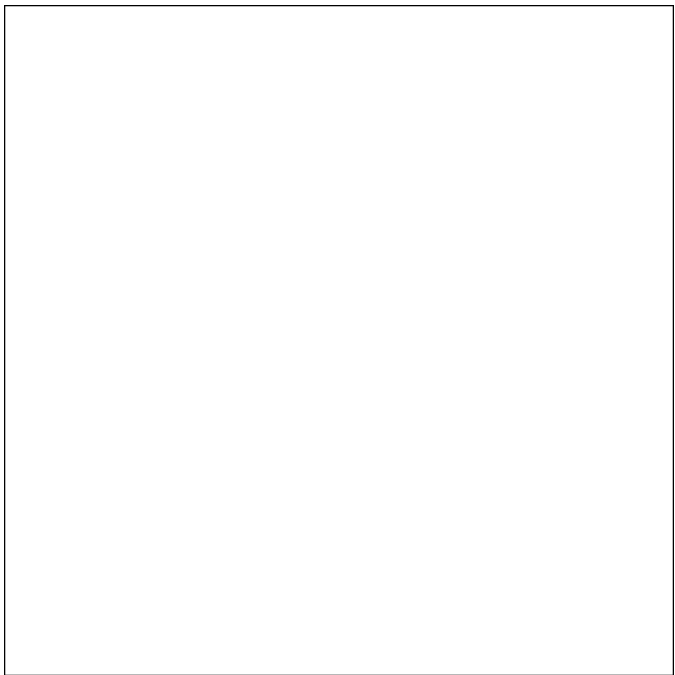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사키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. 그의 여동생은 그를 응원했어요. “사키마의 노래들은 내가 배고플때 날 편안하게 해요. 부자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거예요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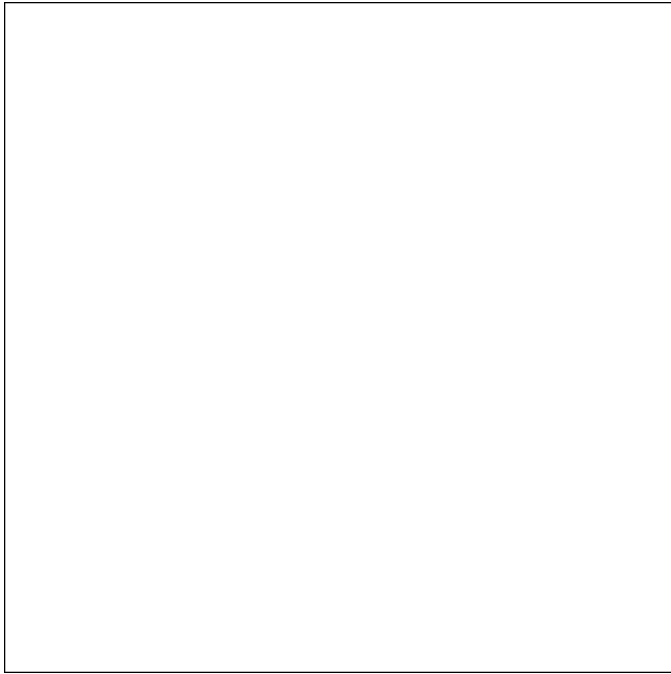


“다시 그리고 또 다시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,  
 오빠?” 여동생은 그를 조르곤 했어요. 시키미  
 는 받아주고 노래를 계속 또 계속 불러주었어  
 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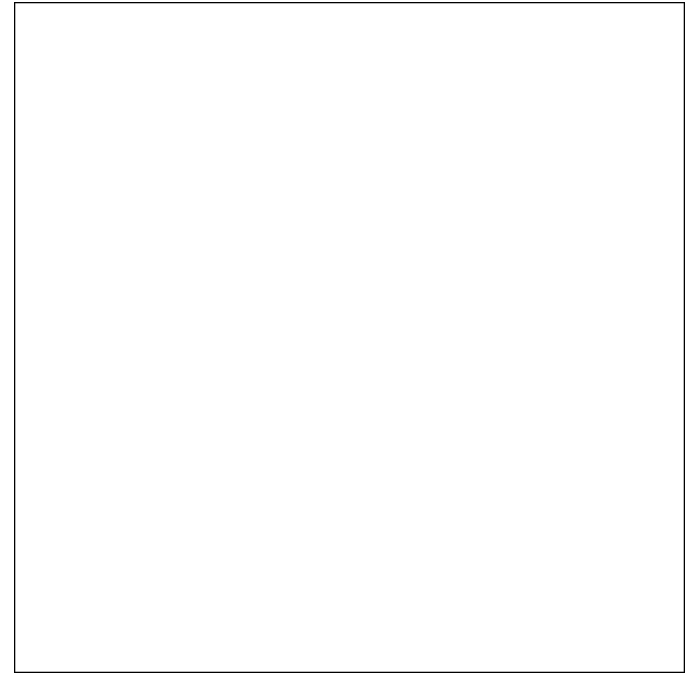


“제가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요. 그는 다시 해  
 줘야겠지 오빠, ” 시키미가 부모님에게 말하  
 았어요. 그러나 부모님은 그를 무시했어요. “그  
 녀의 노래가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?”  
 는 아주 부자야. 녀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고. 녀





한 저녁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, 그들은 아주 조용했어요. 사키마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

“무엇이 잘못됐나요, 어머니, 아버지?” 사키마가 물었어요. 사키마는 부자의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. 부자는 매우 슬프고 외로웠어요.